

신한BNPP가 고객님께 드리는 자산운용보고서  
**신한BNPP법인용Growth증권투자신  
 탁제1호[주식](종)**

운용기간: 2013.07.13~2013.10.28



- |   |  |   |  |
|---|--|---|--|
|  | 2012 대한민국<br>최우수 자산운용사<br>홍콩 The Asset     |  | 2012 Best of the Best Awards<br>한국 기관투자자 최우수운용사<br>Asia Asset Management |
|  | 제12회 한국펀드대상<br>혼합형부문 우수운용사<br>매일경제, 에프엔가이드 |  | 2013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br>기관수익자선정 우수상<br>KG제로인                                 |
|  | 2012 국민연금선정 국내주식<br>우수운용사 보건복지부장관상<br>국민연금 |  | 제4회 아시아펀드대상<br>국내주식형부문 최우수상<br>아시아경제, 에프엔가이드                             |





**펀드성과는 10.26% 수익이 발생하여 벤치마크대 비 3.41% 아웃퍼폼함**

지난 3개월간 수익률 10.26% (기준가 1,074.73원)  
 펀드의 비교지수 6.86% 코스피 7.19%

**Q1. 3개월간 펀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상황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조기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동아시아 금융위기 우려 이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 주식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KOSPI의 상승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내기관은 지수상승에 따른 환매 압력으로 3개월 동안 7조 넘게 순매도 하였으나 외국인이 14조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조선,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과 음식료 통신 등 전통적인 방어주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Q2. 3개월간 펀드의 성과를 알아볼까요?**

지난 3개월 간 펀드는 10.26%를 기록하며 펀드 비교지수의 성과가 6.86% 였던 것에 비해 +3.40% 포인트 초과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성과에 따른 펀드손익은 주식에서 +4,145백만원, 단기대출 및 예금에서 +22백만원, 기타 +123백만원으로 총 +4,289백만원입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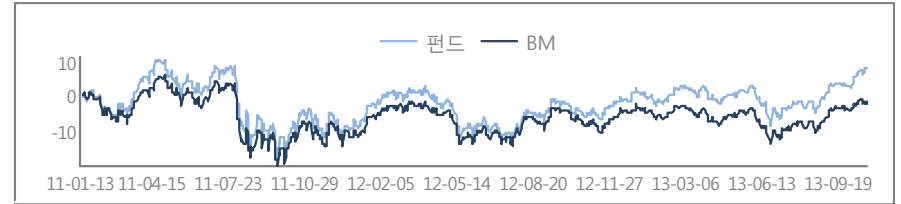
	3개월 (13.07.28 -13.10.28)	6개월 (13.04.28 -13.10.28)	9개월 (13.01.28 -13.10.28)	1년 (12.10.28 -13.10.28)	2년 (11.10.28 -13.10.28)	3년 (10.10.28 -13.10.28)	5년 (08.10.28 -13.10.28)
펀드성과	10.26	8.71	11.03	15.29	12.45	-	-
비교지수	6.86	5.14	5.43	8.04	6.27	-	-
비교지수 대비성과	3.41	3.57	5.60	7.25	6.18	-	-

비교지수대비 성과는 펀드와 비교지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 펀드의 종류별 수익률 현황과 비교지수의 자세한 설명은 3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설정일 이후 누적수익률

(단위: %)



**Q3. 펀드의 운용전략은 어떠했나요?**

펀드는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반등과 은행업종의 오버웨이트등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은행, 전기가스, 보험, 건설 업종비중을 확대하고, 전기전자, 유통, 조선, 화학, 자동차 업종 비중을 축소 하였습니다.  
 선진국 주요 국가들의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큰 폭의 조정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1월 운용전략은 반도체 중심 전기전자, 은행, 유통 업종의 고 비중을 유지하고, 최근 낙폭이 커진 산업재와 소재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11월에 하락시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Q4. 향후 펀드의 운용계획을 들려주세요!**

3중전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와 외국인 순매수 둔화, 펀드 환매 지속에 따른 기관매도 압력 지속 등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환율 하락 방어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환율이 현수준에서 지지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의 연말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하락리스크 또한 크지 않아 한동안 지수는 하단을 높여가는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지수가 하락할 수록 경기관련주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알려드립니다.**

1. 고객님의께서 원하시는 경우, 지금 받아보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E-mail을 통해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E-mail로 받아보시면 우편물 분실위험을 줄이실수 있으며, 각종 그래프 및 차트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판매사를 통해 수신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2013년10월28일에 펀드의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계기간동안 펀드는 369백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으며 결산 기준가는 1,074.73입니다.
3.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법인용Growth1호[주식](종)는 작성기준일 현재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며 자본시장법에 의거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통보나 동의 없이 자산 운용사가 임의해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한BNPP법인용 Growth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펀드의 펀드운용사인 신한BNPP자산운용이 작성하여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목 차**

1. 내가 가입한 펀드의 기본 정보
2. 내 펀드의 수익률
3. 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
4. 투자자산 매매회전률
5. 펀드의 재산현황 및 종류(Class)별 협회코드
6. 펀드 매니저 소개
7. 펀드에서 발생한 비용 현황

**신한BNPP 투자다락방**

→ 현명한 자산인출

※ 공시된 보고서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신한BNPP자산운용 <http://www.shbnppam.com>  
 ■ 금융투자협회 <http://www.dis.kofia.or.kr>

### 1 내가 가입한 펀드의 기본 정보

◆ 고객님의께서는 신한BNPP법인용Growth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중)에 가입해 계십니다.

이 펀드의 투자목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7527
펀드종류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최초운용시작일	2011.01.13
운용기간	2013.07.13 ~ 2013.10.28	존속기간	2013.10.29
자산운용회사	신한BNPP자산운용	판매회사	신한금융투자
펀드재산보관회사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 2 내 펀드의 수익률

◆ 종류별(Class) 수익률 현황

펀드별 보수, 수수료 등에 따라 종류별로 수익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사를 통해 가입하신 종류를 안내 받으시고 수익률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3개월 (13.07.28 -13.10.28)	6개월 (13.04.28 -13.10.28)	9개월 (13.01.28 -13.10.28)	1년 (12.10.28 -13.10.28)	2년 (11.10.28 -13.10.28)	3년 (10.10.28 -13.10.28)	5년 (08.10.28 -13.10.28)
C-i1	10.15	8.47	10.67	14.78	11.46	-	-
비교지수 대비성과	3.29	3.33	5.23	6.75	5.19	-	-

■ 비교지수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 KOSPI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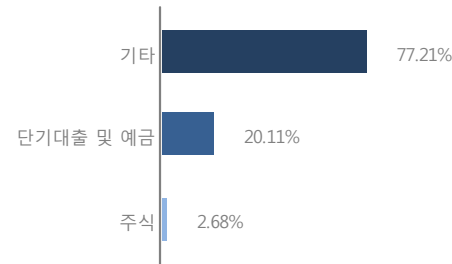
: KOSPI 지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주식 변동을 시가총액방식으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로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 콜금리

: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 3 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

◆ 자산별 구성 비중



법인용Growth1호[주식](중)펀드는 2013년 10월28일 현재 기타편입비중은 77.21%이며, 전기말에 비해 76.8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 펀드의 상위 10개 보유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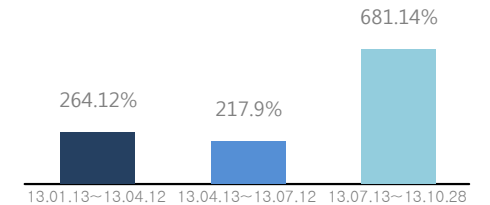
펀드 자산총액의 상위 비중 10개 종목을 보여드립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비교란의 설명을 통해 해당자산의 발행국가 및 주식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종목명	평가금액	비중	비고
단기대출 및 예금	한국가스공사	142	2.68	
	예금잔고	359	6.77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
	한국외환은행(콜)	236	4.45	
	한국씨티은행(콜)	236	4.45	
기타	우리은행(콜)	236	4.45	
	미수입금	4,098	77.21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

### 4 투자자산 매매회전율

매매회전율은 해당운용기간동안 주식매매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해당기간동안 펀드내에서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100억원일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1회전)으로 기록됩니다.



매매회전율이 클수록 거래비용 등 투자자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회전율은 운용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매매회전율이 높다고해서 비용을 유발하는 펀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펀드의 스타일, 규모, 시장상황에 맞춰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505,357.00	25,963.85	1,650,727.00	86,844.01	201.54%	681.14%

### 5 펀드의 재산현황 및 종류(Class)별 협회코드

◆ 펀드의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전기말(2013.07.12)	당기말(2013.10.28)
자산총액	59,210	5,307
부채총액	288	1
순자산총액	58,922	5,307
기준가격	959.14	1,074.73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가입하신 펀드의 종류(Class)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펀드명	종류(Clas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기준가격
법인용Growth1호[주식](중)	C-i1	97531	1,067.23

### 6 펀드 매니저 소개

◆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수립 및 투자사실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성명 : 이승문 (직위:팀장)
- 운용중인 펀드수 : 총 82 개 (운용규모 : 1,549,440백만원)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운용규모 : 2 개 / 26,141백만원
- 협회등록번호 : 2109000755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이승문 (직위:팀장)
- 협회등록번호 : 2109000755

◆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2013.09.12 ~ 현재	이승문
2011.01.13 ~ 2013.09.11	김영기

### 7 펀드에서 발생한 비용 현황

펀드 보수는 펀드의 운용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산운용회사(운용보수), 판매회사(판매보수),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용보수는 펀드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며, 판매보수는 펀드 판매에 소요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수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밖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탁보수와 기준가 계산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반사무관리보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정해진 보수율이 다르므로 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보수 및 비용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2013년04월13일~2013년07월12일		당기 2013년07월13일~2013년10월28일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55.58	0.365	45.59	0.365	
판매회사	6.09	0.040	5.00	0.040	
펀드재산보관회사	3.05	0.020	2.50	0.020	
일반사무관리회사	2.28	0.015	1.87	0.015	
보수 합계	67.00	0.440	54.95	0.440	
기타비용	0.89	0.005	-0.67	-0.005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18.13	0.110	34.12	0.246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54.59	0.332	94.28	0.680
	합 계	72.72	0.442	128.39	0.926
증권거래세	104.03	0.632	261.59	1.886	

◆ 총보수/비용 비율

- 전기: 2013년04월13일~2013년07월12일
- 당기: 2013년07월13일~2013년10월28일

(단위: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비율
법인용Growth1호[주식](중)	전기	0.415	0.442
	당기	0.384	0.926
종류(Class)별 현황			
C-i1	전기	0.446	0.442
	당기	0.434	0.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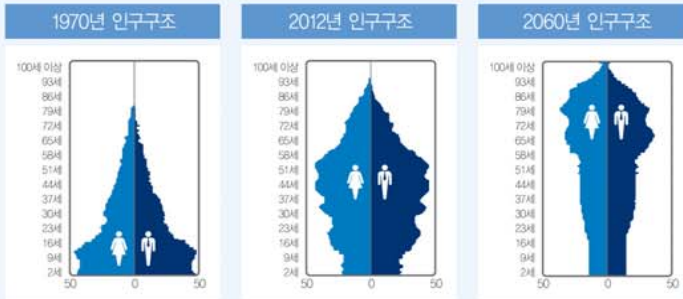
총보수/비용비율과 매매/중개수수료비율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 매매중개수수료를 펀드의 연간평균잔액(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써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신한BNPP  
투자다락방

# 현명한 자산인출

## □ 현명한 자산인출 전략 왜 필요한가?

평균수명증가로 본격적인 고령화시대가 시작되면서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전략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제안되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금융이 갖는 이 시대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속도와 인구구조는 그 모습이 매우 닮아 있다. 성장기도를 달리던 70년대에 비해 저성장국가로 진입할수록 인구구조도 노령화되어가는 추세이다.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 노령화 현상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금융의 역할에 거는 기대감이 커진다. 경제적 문제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8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과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금융을 통한 경제적 의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을 통해 현명한 자산 인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간 금융상품이 적립과 배분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면 이제는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인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70-80년대만 생각해보아도 모든 직장인의 꿈은 내집마련에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저축에 관심을 주목 시켰다. 하지만 곧 시장의 높은 금리는 저성장국면과 함께 저금리로 낮아졌고 기대수익률 충족을 위해 투자로 관심을 돌린 개인들은 분산투자,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는 자산을 증식시키면서도 자금의 목적별로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단순히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나타나는 자산 인출 전략에 대한 적극적 고민은 생애재무목표가 내집마련, 자녀교육



및 결혼에만 있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에서부터 기인한다. 평균수명을 대략 80세로 가정하고 은퇴시점을 50세 전후로 가정했을 때 인생의 거의 절반 정도는 소득없이 살아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투자는 너무 간과해 온 게 사실이다. 이기는 경기를 위해서는 전반전과 후반전 중에 그 어떤 하나만 선택하는 전략은 너무 위험하다.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 전략을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 □ 현명한 자산인출 전략

최근에 월지급식펀드와 즉시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현명하게 적립하여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 했다 하더라도 인출전략이 없으면 적립한 목돈을 비효율적으로 써버리게 되어 은퇴자금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액을 적립하여 목돈을 만드는 일보다 목돈을 필요한 기간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인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이 것이 인출전략까지 금융상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확대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은퇴실체는 필요자금을 산정하고 부족자금을 분석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련된 은퇴자산을 현명하게 인출하는 것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립, 배분, 인출 단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개인연금이다.

연금펀드는 안정형(채권형)부터 공격형(주식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펀드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충족된 경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배분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킬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연금펀드는 마련된 목돈을 지속해서 운용하면서도 필요한 기간동안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본연의 기능인 자산인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펀드를 가입함으로써 적립, 배분, 인출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다.

아직도 수십년 남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들 이야기한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길게만 느껴지고 생활해야 할 노후기간은 짧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부터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소득없이 살아야 할 은퇴 후 생활 기간을 비교해보면 당장의 실천 없는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은퇴준비라는 것이 막막하기만 하고 마치 거창한 시작이 있을 것 같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준비된 자세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은퇴준비의 절반을 채우게 될 것이다.